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분쟁해결 전문 석사과정 연수 후기(II)

美 LA지방법원 소액재판 조정인 활동기



장 성 원
전북사무소장

“(서기)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기립해 주세요!”

“(판사) 오늘 재판은 오후 5시까지이고..., 여기 조정인(mediator)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정반대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정을 적극 권하겠습니다. 조정인, 나와서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판사님(Thank you, Your Honor).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페퍼다인 로스쿨 입학 후 4주가 지난 어느 날, 장소는 LA지방법원 벤 나이스 소액재판 법정. 필자는 판사석 앞에 서서 방청석을 메운 다양한 인종의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조정의 장점(과 재판의 단점)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다. (그것도 영어로!)

지금 생각해도 진땀나는 경험이었다. 남 앞에서 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영어로 대중 스피치를 해본 적은 없는데... 하지만 필수 과목인데 어쩔라. 친구가 된 로스쿨 직원한테 부탁해서 멘트도 보완하고 리허설도 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다른 조정인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 미지 트레이닝도 열심히 했다. 아마 등장인물들이 영어를 쓰는 꿈을 꾸기 시작한 시점도 이즈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

소액 재판 사건은 대부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과 교통사고 과실 및 의료비 사건이었고, 기타 금전 차용 분쟁 등이었다.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관련 캘리포니아 법 해설을 봐도 처음엔 감이 오질 않았다. ‘그래, 이런 게 커뮤니티 조정이야하면서도 소액 재판도 참 관하고, 다른 조정인들 옆에서 귀동냥하면서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 같은 표현을 외워서 써먹었다. 조정 경험이 쌓이면서 문화권마다 분쟁해결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배웠는데, 예를 들어 유럽의 아르메니아 출신 사람들은 대놓고 소리 지르고 싸우길 좋아하지만 실상은 조정에서 다 합의하지 판결을 싫어한다고 한다.



LA 지방법원 채스워스 지원

기억에 남는 소액조정 사건 1: 아버지의 유산(遺産)

LA다운타운 지방법원 본원에서 중남미계 세입자 할머니와 중년의 집 주인 간 분쟁을 조정했다. 우리나라 시골 할머니 같으신 원고는 자기가 그동안 건물 주위 청소도 했으니까 밀린 월세는커녕 오히려 수고비를 달라는 주장이었다. 집 주인은 밀린 월세를 내든지 나가달라고 했다. ‘집세도 안내는데 적반하장인 노친네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래 산 정든 집에서 계속 사시려는 생각 정말 이해합니다, 할머니.” 하면서 원고 손을 꼭 잡으면서 감성 조정을 시도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한참 있다 울먹이며 이사 가고 싶다고 했고, 밀린 월세는 줄 수 없고 이사 비용 등을 달라고 했다. 조정이 어려울 걸로 보고 다른 방에 있던 집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또 의외로 쌍수를 들고 돈을 줄 테니 빨리 나가달라는 반응.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집 주인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후처였던 것. 결국 원고가 2개월 이내에 우리 돈으로 3백만 원을 받고 이사 가는 것으로 합의됐다.

기억에 남는 조정사건 2: 왔다! 일당백(一當百) 진상 입주자

갈등을 키우는 성격 장애(Personality Disorder)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재미있는 로스쿨 수업을 듣던 필자에게 딱 들어맞는 당사자가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시면서 모든 회계자료를 다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청구하신 그 분, 법원 복도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가지고 온 박스터미를 몰래 뒤지시다 걸리자 소리부터 뻗 지르시곤 화장실로 가시는 그 분, 조정을 시도하자 의심부터 하시고 보통 자세히 안보고 서명하는 조정 비공개 서약서를 눈이 빠지게 읽어 보시는 그 분, 조정 끝에 입주진 대표들이 자료를 보여주기로 정했는데도 다음 재판 기일에 보자며 부리나케 가시는 그 분. “어디나 있다”던 교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돌이켜 보면 그 아파트 대표들에게 우왕청심환이라도 드릴 걸 그랬나 보다.